

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비교해 볼 때, 신학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, 그 중 요한복음의 수난설화(passion narrative?)는 공관복음의 기록과 비교적 유사한 점이 많다. 겟세마네 동산, 유다의 배반, 체포, 심판과 처형, 장사지냄(proper burial), 베드로의 부인, 여인들이 십자가처형 현장을 지킴, 등..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고난/수난이라고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. "다 이루었도다!"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이다.

A. 예수를 찾는 사람들—"너희가 누구를 찾느냐?"

1. 무슨 목적으로

- 제자들—요한복음 1 장 (1:38)
- 니고데모, 우물가의 여인
- 군중들—먹고 배부른 까닭(6:26)
-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(7:19; 8:37, 40=> 18:4, 7, 8)

2. 요한복음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 (누구를, 왜 찾는가?)

- 유다 다시 보기=>유다복음. Scapegoat. 르네 지라르(René Girard).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감(마 26:56; 막 14:50=>요 18:8)
- 바리새인. 3 절(군대, 대제사장, 바리새인), 12 절(군대, 천부장, 유대인)에서 바리새인이 드러나지/활동하지 않지만 여전히 명단에 오른다. 바리새인=유대인=예수의 대적자 => 지금의 말로는 "유대인"이 아닌, 세상의 이데올로기/가치관을 신봉하는 지배자.
- 안나스 (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; 요 18:13). 안나스 대제사장(? 18:19, 22=>24). "대제사장들"(18:35; 19:6, 15, 21). 24-28 절, 대제사장 가야바와의 면담은 리포트하지 않음.
- 베드로. 귀를 베다. 무명의 제자(마 26:51; 눅 22:49-50) 혹은 구경꾼(막 14:47; cf. 14:50)

3.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(οὐκ ἔστι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; οὐκ ἔστιν ἐντεῦθεν)

- 죽이는 권세가 없다? (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)=> 십자가 처형을 염두에 둬(요 18:32)
-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다=>다른 종류. Not of/from this world. 그렇다면 "하느님의 나라"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소유—직접통치—개념(Genitive of subject)으로 볼 것이 아니라, 하느님께 속함(Genitive of belonging, origin)으로 이해.

B. 세상의 구주, 예수 그리스도

1. 유월절 양, 예수

- 예수는 무죄=> 빌라도의 공식적 입장. 3 번(18:38; 19:4, 6)
- 유월절 이전에 죽음 (고로,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가 아님. 예수가 유월절 양)
- "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"(요 1:29)

2. 성서 다시 읽기/쓰기

- "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"(19:36)=> 다 이루었도다(19:30)
- 저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본 역사, 곧 해석된 사건=> 거꾸로, 쓴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?

생각해 보기

1. 예수가 내노라(ἐγώ εἰμι) 할 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다(요 18:6).
2.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직접 십자가를 진다(요 19:17; cf. 마 27:32//막 15:21//눅 23:26).